

사회

“동서화합, 숭고한 뜻 잊지 않겠습니다”

봉하마을 주민들, 하의도 찾아 아픔 함께 나뉨

김대중 前 대통령 國葬

“잊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동서화합에 헌신했던 분의 뜻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봉하마을 주민들이 2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신안 하의도를 찾아 조문했다.

이병기 이장 등 주민 14명은 이날 새벽 1시경 봉하마을을 출발해 신안 하의도까지 비가 내리는 곳도 날씨를 마다않고 7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왔다. 이날 조문길에는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연극인 명계남 씨와 김정호 전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도 동행했다. 이들은 하의도 면사무소와 후광리 생가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김 전 대통령 영전에 손수 마련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는 현수막과 근조 꽃바구니를 바치고 분향했다.

봉하마을 이병기 이장은 “봉하마을이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충격과 슬픔에 빠졌을 때 하의도 주민들이 찾아와 격려와 위로를 해주어 큰 힘이 됐다”면서 “김 전 대통령을 잃은 하의도 주민들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아 이를 나누고자 하의도를 찾았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인 경남 진영농협 이재우(60) 조합장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 하신지 채 석달도 되지 않아 김 전 대통령마저 떠나셨다”면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지역주의 극복에 앞장 선 두 정치 지도자를 한꺼번에 잃어 안타깝고 슬프다”고 애도했다.

함께 조문은 김정호 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에 ‘내 몸의 절반이 무너진 것 같다’고 슬픔을 토로했다”면서 “민주주의와 지역감정 타파에 평생을 바치신 두 분의 유지를 받들어 영호남 화합과 국민 통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고향마을 주민들은 지역감정 타파를 위하여 고인들의 뜻대로 마을 간 교류를 통해 동서화합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어서 21일 오후 광주로 옮겨 옛 전남도청에 마련된 광주 시민합동분향소를 방문, 김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했다.

이들은 합동 조문 직후 ‘민주 정부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추모 퍼포먼스에 참석, 합평군에서 마련한 나비 100여 마리를 하늘 높이 날려 보내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재우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정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군 하의도에 마련된 분향소에 21일 오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주민 14명이 찾아와 분향하고, 하의도 주민들을 위로했다. (신안군 제공)

적 지주였다. 비록 몸은 경남에서 태어났지만 모든 정치적 뒷바라지는 호남분들이 해줬다”면서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광주·전남지역민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우리도 미려하나마 보답하고자 광주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신안=조완남기자 wncho@kwangju.co.kr)



경찰관 사칭 성폭행

광주동부경찰 20대 구속

광주동부경찰은 21일 경찰관을 사칭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김모(2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20일 밤 10시경 광주시 북구 한 호텔에서 채팅을 통해 유인한 A(18)양에게 “내가 경찰관인데,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협박,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성매매를 수사 중”이라고 속이면 여성들이 쉽게 성관계에 응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김형호기자 khh@

‘돌 배낭’ 맨 익사체 나주 지석강서 발견

나주에서 돌배낭이 들어있는 배낭을 맨 채 물속에서 숨진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낮 12시40분경 나주시 급천면 신거리 지석강에서 30~40대 추정되는 남성의 시신을 낚시객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지석강은 수심 2m 가량으로 발견 당시 남성의 시신은 15kg 가량의 돌배낭이 들어있는 배낭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경찰은 시신에 별다른 외상이 없는 점으로 미뤄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지만 타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남성의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연행중에도 경찰관 MP3 ‘슬쩍’

○한 40대 절도시건 피의자가 경찰서에 끌려가면서까지 경찰관의 MP3플레이어 등을 훔친 사실이 뒤늦게 들뜬다 또다시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은 21일 순찰차에서 경찰관의 MP3 등을 훔친 조모(45)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50분경 빈집에서 모자를 훔친 혐의로 붙잡혀 경찰서로 가던 중 순찰차에서 MP3 등이 들어 있던 김모(41) 경찰관의 손가방을 훔친 혐의.

○조씨는 이날 경찰 조사가 끝난 뒤 경찰관의 손가방을 들고 유유히 귀가했는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MP3로 음악감상(?)을 즐기는 모습이 무인감시카메라에 포착돼 범행이 들뜬. /김형호기자 khh@

광주시 3대 국제행사 예정대로 개최

〈광엑스포·김치축제·디자인비엔날레〉

“연기·취소 땀 막대한 재정·행정력 낭비”

市, 신종플루 예방 등 종합대책 마련 나서

가을철 신종플루의 대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검역출장소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책을 수립해 하반기 김치문화축제 등 국제행사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 예정된 시의 국제행사는 2009 세계광엑스포, 김치문화축제, 디자인비엔날레 등으로 이들 행사의 성격상 국내 각지와 외국에서까지 관람객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9월부터 11월 사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불요불급한 행사를 가능한 자체해 결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시는 이들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온데다 준비하는 데 막대한 행정력과 재정이 투입돼 행사의 취소·연기가 아닌 철저

한 대비책을 마련한 뒤 예정대로 개최하는 쪽을 선택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들 3대 행사기간 중 개최장소에 국립목포검역소 출장소와 의사 및 약사 등이 근무하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신종플루 환자를 가려내고, 현장에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인근 군부대나 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백신을 조속히 확보하는 한편 다음주 내 14곳의 거점치료병원과 8곳의 거점약국, 각 학교 보건교사 등을 상대로 신종플루 예방 및 초기 진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들 행사는 반드시 개최돼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따라서 관람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각 가정과 개인이 ‘손 씻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즉각 의료기관을 찾아 정밀 진단을 받아보는 등 철저한 예방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의 신종플루 확진환자는 이날 현재 전남보다 24명이나 늘어나는 등 환자 수가 68명으로 증가하는 등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전남지역은 전남 확진환자 수가 36명에서 59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여름방학 개학 뒤 각 학교나 군부대에서의 집단감염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일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고 신종플루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 지자체들이 9~10월 열리는 대규모 행사들의 축소·연기·취소를 검토하도록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마지막 가시는 길 국화꽃이라도...”

옛 전남도청 앞 ‘민주정부 부활’ 퍼포먼스

■ 광주·전남 분향소 표정

오늘 하의도 ‘진도 씻김굿’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나흘째인 21일 광주·전남지역에 설치된 분향소에 비교적 차분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마을 주민들이 조문을 다니는 등 애도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곳곳의 분향소에는 백발의 노인과 부모와 함께 온 어린이까지 각계각층의 조문이 계속됐다.

딸과 함께 옛 전남도청 분향소를 찾은 이근선(32·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평생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남북통일, 동서화합에 노력해온 신 분이라 그동안 존경해왔다”며 “허전한 마음을 가눌 수 없어 영전에 국화꽃이라도 드려야할 것 같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고인을 추모하는 종교·문화 행사도 잇따라 열렸다. 천주교 광주대교구가 이날 오전 11시 주교좌인 임동성당에서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의 주례로 500여 명의 신자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미사를 가졌다.

또 신안에서는 21일 김 전 대통령 서거를 추모하는 진도 씻김굿이 고향마을인 하의도 생가에서 열렸다.

진도군은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주관으로 ‘진도 씻김굿’을 하의도 생가에서 이날 밤 8시부터 3시간동안 진행한다.

한편 광주지역 곳곳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은 21일까지 8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행기자 galee@kwangju.co.kr



21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광주시민합동분향소에서 열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 퍼포먼스 ‘민주정부의 부활’에 참가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주민 등이 옛 도청 벽면에 걸린 전직 두 대통령의 현수막을 보며 영면을 기원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전남 교원 620명 승진·전보 인사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21일 교육장과 초·중등 교장, 교감, 전문직 등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9월 1 일자로 단행했다. (명단 15면)

시교육청은 초등과 중등에서 각각 187명과 116명 등 303명이, 도교육청은 초등 188명, 중등 129명 등 317명이 승진 또는 전보, 신규 임명됐다.

광주는 정필연 초등인사담당 장학관이 교육정책과장으로 승진했으며, 박종국 교육정책과장은 교원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광주학생

신안교육장에 각각 임명됐다. 여수교육장에는 장애신 곡성교육장이, 곡성에는 강병수 구례교육장이, 구례와 완도교육장에는 배병재 장성교육장과 장재의 진도교육장이 자리를 옮겼다.

교장은 초등과 중등에서 각 38명과 32명이 승진했으며 공모제를 통해 610명 등 22명이, 교감은 15명과 8명 등 23명이 승진했다. 장학관, 연구사 등 전문직은 32명이 직위 승진하거나 전보, 신규 임명됐다.

전남은 김형 화순교육과장이 영암교육장으로, 안평군 광양중등초 교장 장영진 교육정책과장으로 교원정책과, 나연수 신안교육과장이 진도와

교육정책과장으로 승진했으며, 안평군 광양중등초 교장 장영진 교육정책과장으로 교원정책과, 나연수 신안교육과장이 진도와

교사에서 교감으로 모두 76명(초등 41명, 중등 35명)이 승진했으며 장학관, 연구사 등 교육 전문직은 모두 65명이 자리를 옮기거나 신규 임명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7분 해질 19시 13분 달돋이 07시 49분 달질 20시 03분

‘안개주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나 지역에 따라 안개가 끼는 곳도 있었다.

광주	구름 조금	22/31℃
목포	구름 조금	22/30℃
여수	구름 조금	23/29℃
완도	구름 조금	21/30℃
구례	구름 조금	21/33℃
영암	구름 조금	22/31℃
장흥	구름 조금	21/31℃
고흥	구름 조금	20/31℃
순천	구름 조금	22/33℃
영광	구름 조금	21/31℃
진도	구름 많음	22/31℃
전주	구름 많음	22/31℃
남원	구름 많음	21/31℃
옥산도	구름 조금	22/28℃

〈오전〉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0.5m 0.5~1.0m 높음 경고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1.0~1.5m 높음 경고 높음

〈오후〉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0.5m 0.5~1.0m 목포 03:24 08:32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1.0~1.5m 여수 10:15 03:59
전주 22:32 16:13

◇주간 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28(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22/31	22/31	22/31	23/29	22/29	24/30

“아파트 관리비 줄여드립니다”

광주도시공 절감방안 확대

광주도시공사가 경비실 통합, 옥상 물탱크 철거 등을 통해 영구 임대 아파트(쌍촌·하남·금호영구)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도시공사는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 쌍촌 영구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했으며 그 결과 10% 정도의 관리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관리비 절감방안을 하남·금호 영구임대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우선 이들 영구임대 아파트의 17개에 달하는 경비실을 4개로 줄이고, 대신 64곳에 무인카메라(CCTV)를 추가 또는 교체 설치한다.

또 각 세대 수도 공급 방식을 고수조방식에서 가압펌프방식으로 변경해 노후화된 옥상 물탱크는 철거하기로 했다. 도시공사는 올 초에도 청소·경비·엘리베이터 용역을 수의계약에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해 약 5%의 관리비를 절감시킨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